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공간 구조적 특성

Space Structure Character of Hangeul Typography

김영국*, 박성현**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Young-Kook Kim(kook1@hongik.ac.kr)*, Seong-Hyeon Park(sami37@empal.com)**

요약

문자 일반의 체계적 발전의 토대는 기능성과 구조적 측면에서의 조형적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판단된다. 모아쓰기의 원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핵심이라고 지칭할 수 있으며, 여기에 기능성과 조형성이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한 조형적 변화는 물론 한글만의 특수한 자형결합의 원리로 인해 낱글자 내에서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공간구조가 발생하고 단어, 글줄, 단락으로 추가 결합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2, 제3의 공간 구조적 특성이 만들어지고, 이는 곧 타이포그래피의 핵심기능인 가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글타이포그래피의 공간 구조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우선 형태심리학적 시지각 법칙과 연관 지어 검토하고, 이에 따른 네모틀 활자와 탈네모틀 활자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같은 문장의 글을 네모틀활자와 탈네모틀 활자에 적용시키고 실험을 통해 기능성 즉, 가독성과 판독성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공간 구조적 특성이 기능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었으며 향후 디자인 관점에서 한글타이포그래피의 공간 구조적인 조형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개념인 소통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조형적 원리에 입각한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디자인뿐만 아닌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형태심리 | 공간 구조 | 가독성 |

Abstract

General development basis of letter system is recognized by formative value in terms of its function and structure. principle of clustered writing is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Hangeul typography as considered that it is based on function and formativeness. Thus, not only by changes with its form but also by its characteristic syllable combination, space structure is made as consonants and vowels are combined in single letter, then the combination develop into word, sentence, paragraph to make second, third space structure character. This character has significant impact on readability that is core function of typography. With this property, space structure character is regarded as very important component of Hangeul typography. First, space structure character of Hangeul typography is reviewed by relating it to visual perception of gestalt psychology and compared square-framed letter and framed latter By applying square-framed letter and framed latter in same sentence, legibility and readability were studied. Researcher has found that space structure character of Hangeul typography has significant impact on its function, and in terms of future design, it is very critical not only for design but also for communication environment as space structure formativeness of Hangeul typography interact with communication that is basic concept.

■ keyword : | Gestalt | Space Structure | Readability |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71203-003

접수일자 : 2007년 12월 03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2월 14일

교신저자 : 김영국, e-mail : kook1@hongik.ac.kr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 민족의 고유 문자는 그 민족의 정서를 디자인적 차원에 품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다. 사회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언어가 존재하고 그 언어의 기록수단으로서 문자가 갖는 민족적 미학은 결국 사회구성원의 사상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기반으로 한 사회적 실천과 역사적 계승에 의한 민족정서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민족이 존재하는 한 문자의 미학은 민족의 미학적 정서와 그 역사에 의해 구성되며 변화한다. 그러나 근대 이래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다양한 서양의 사상 및 문화체계는 우리 내부적인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한국 고유의 정신문화적 기반마저 붕괴시키려 했다. 소위 미국적 스타일이 우리에게 최상의 모더니티를 부여할 기반으로 착각했던 지성적 오류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처럼 우리 문화에 대해 스스로 진실하지 못한 문화적 도덕성의 결핍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등의 사조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고유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도 전에 맹목적인 답습과 실험적 작품만을 파생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타이포그래피가 추구해야 할 핵심은 기능성이다. 80년대 이후 디지털미디어의 도입으로 인한 다양화된 한글 타이포그래피 환경, 디지털 폰트의 보급화 등은 타이포그래피를 근대적 관점으로부터 탈피시키면서 보편성의 해체, 선형적 독법(讀法)의 해체, 이미지의 해체, 그리드의 파괴현상 등의 해체주의적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적 한계가 분명했던 시대에 주어진 최선의 결과가 기능주의에 대한 정의로 합당했다면 그 한계가 사라진 지금에서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성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기능성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글의 네모틀 활자와 탈네모틀 활자의 공간구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기능인 가독성과의 관계

를 실험을 통한 접근으로 시각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인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다변화, 다매체 등의 시대변화에 따른 유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서 형태(게슈탈트Gestalt) 심리학의 시지각에 따른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성(가독성)을 규명하고,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활자 구조를 분석한다.
2. 네모틀 활자와 탈네모틀 활자의 구조를 비교 분석한 후에 실험을 통해 기능성(가독성)을 비교한다.

글꼴 구조에 따른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서체 선정에 있어서도 본문용 활자를 목적으로 개발된 서체로 네모틀 활자는 ‘바탕체’를 탈네모틀 활자는 ‘공한체’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기능 분석에서도 가로모임글자, 세로모임글자, 섞임글자를 모두 보여 줄 수 있는 ‘한글나아름답고빠어난그를사랑했노라’ 라는 문장으로 실험한다.

네모틀 서체의 가독성의 우수함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듯이 수용자들의 익숙해진 습관적 미감의 기준이 가장 커다란 영향으로 지적된다. 이미 판독성에 있어서는 탈네모틀 활자꼴이 네모틀 활자꼴 보다 우세함이 입증되었고, 가독성에 있어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익숙함’과 ‘완성도’를 해결하고자 무수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조인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게슈탈트 심리학에 근거한 네모틀 활자꼴과 탈네모틀 활자꼴의 기능과 구조의 비교 분석은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한글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방향 제시 역할이 될 것이다.

II.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기능과 구조

1. 형태심리학의 시지각 법칙에 따른 한글 타이포그래피

1.1 형태심리학의 전제와 성격

형태, '게슈탈트(Gestalt)'라 함은 근대 독일어에서 사물이 형성된 방법, 즉 어떤 자리에 놓이거나 조립된 방식을 의미하는 말로서, 물리적 자극 대상이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양을 지니는 것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설사 언뜻 보기에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형태나 예술작품을 보더라도 인간은 보기에 좋은 게슈탈트를 가진 형태를 보다 빨리 인식할 수 있다.

형태심리학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명제 하에 시지각 현상에서 전체성에 우위를 부여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제 법칙, 요컨대 프래그난츠 법칙, 형과 배경의 관계, 군집화 법칙에 전체성을 일관되게 전제하였다. 체계화 과정의 법칙들은 형태심리학자들이 1900년대 초에 서구 유럽에서 등장한 구성주의 심리학의 원자론적인 방법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되고 대안으로 전체주의적 맥락에서 시지각적 원리를 체계화 시켰다.

형태심리학의 핵심적 성격은 그들이 이전의 접근법, 즉 구성주의 심리학과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다. 구성주의는 감각의 조각들이 합해 지각을 이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소적인 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원자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구성주의가 감각과 지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리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형태심리학자들은 부분보다는 부분들의 역동적인 분배의 특성으로서 기능적 전체를 제시하였다 [1]. 또한 그 방법에 있어 구성주의가 택했던 훈련된 내성자들 보다는 훈련되지 않은 일반의 피 실험자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는 것을 기술하여 인간의 지각현상에 대해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형태심리학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보편성은 지각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류하는 방식이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한 후천적 요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 체계 내에 이미 강력하게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가능했다[2]. 이러한 생득적인 성격으로 형태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법칙은 일종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적 성향에 대한 일반원리로 파악된다.

형태심리학자들은 지각과 감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외부의 시각 자극이 망막위

에 맺힌 상은 지각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인간이 지닌 생득적인 형태선호의 경향이 개입하여 전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시지각적 법칙에 따른 한글 타이포그래피

1.2.1 프래그난츠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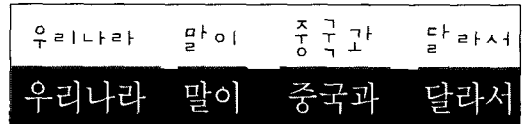


그림 1. 프래그난츠 법칙의 예시

형태심리학의 핵심적인 법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법칙은 모든 자극 패턴들을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한 구조로 지각하려는 경향을 일컬으며 다른 용어로는 '좋은 형태의 법칙(Law of Good Figure)', 혹은 '단순성의 법칙(Law of Simplicity)'라 불리는데 이는 지각하기 좋은 형태를 의미하고 여기서 좋은 형태란 단순성을 지닌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몇 가지 조형요소의 다양한 조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인식할 때, 각 조형요소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문자인식이 자소수준이 아니라 음절 또는 단어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법칙의 작용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법칙에 따라 형태는 파편화되고 무질서해 보이는 것 보다는 의미를 지니는 전체로 나타나 인간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마치 흘러 쓴 필기체나 출력 상의 오류가 발생한 글자를 볼 때에도 게슈탈트를 가진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지각적 체계화의 다른 법칙들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 인지과정이 개입하지만 체계화에 한정하여 보자면 프래그난츠 법칙은 다른 법칙들 보다 상위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2.2 형과 배경의 관계에 대한 법칙



그림 3. 집단화 법칙의 예시

형과 배경의 분리가 지각에 있어 발생하는 첫 단계로 간주된다. 자극시간이 길면 국소적인 세부특징을 모두 지각할 수 있지만 자극시간이 짧을 경우 도형의 형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과 대조되는 어떠한 종류의 도형을 지각한다고 한다[3].

이와 마찬가지로 인쇄된 단어를 읽을 때 그 글자의 특정 글자체나 디자인을 인식하는 일은 드물지만 글자의 형태를 바탕의 공백과 우선적으로 분리하므로 글자의 명증성이나 글자의 미적특징에 있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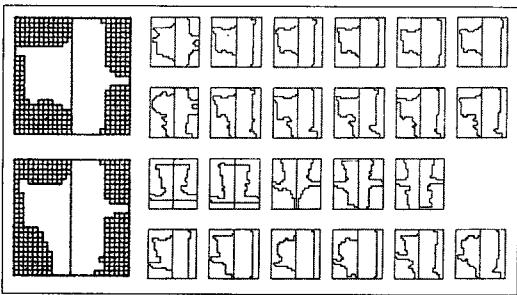


그림 2. 형과 배경의 관계에 대한 법칙의 예시

글자들은 홀로 설 수 없고 다른 글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글자들 사이의 공간은 각각의 다른 글자들 사이의 공간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글의 글자구조는 자소단위가 음절을 이루고 또 단어로 이루어지면서 그 내용이 인지되기 때문에 형과 배경의 관계에서 자소나 음절단위의 글자의 형태로 보기 보다는 조합된 단어, 혹은 구문의 형태와 배경의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3 집단화 법칙

구성요소들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부분 부분을 결합시켜보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 법칙에 따라 무질서해 보이는 시각적 자극들을 집단화하여 구형, 혹은 대칭형 등의 전체적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집단화 법칙은 여섯 개의 주요법칙-근접성의 법칙(Law of Proximity), 유사성의 법칙(Law of Similarity), 친숙성의 법칙(Law of Familiarity), 연속성의 법칙(Law of Continuation)-으로 구성되고 이들은 각각의 특정요소들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남아있기 보다는

에 함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각 하위의 법칙들은 서로 중첩되었을 때 경쟁을 통하여 우위를 가지는 법칙이 나타난다.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 제자원리가 집단화 법칙에 비교적 잘 적용되는 성격을 지닌다. 가장 큰 이유는 한글은 모아쓰기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는 단어 아래 음절단위로, 아래 자소단위, 또 아래 수직, 수평선, 원 등의 기본적인 기하학적 요소들이 하위집단을 이루어 각각의 상위집단을 향해 시각적으로 집단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법칙들은 각각의 독립된 법칙이라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으며 형태심리학자들은 계슈탈트를 실질적인 지각의 단위로 생각하였으므로 각 법칙들은 좋은 형태를 지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2.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기능

2.1 가독성의 정의

타이포그래피가 추구하는 핵심기능은 가독성이다.

본 연구에서 가리키는 가독성은 '레지빌리티(legibility)'와 '리더빌리티(redability)'가 있다. 산드라 에른스트(Sandra B. Ernst, 1977)에 따르면 '레지빌리티'는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것이며, '리더빌리티'는 보고 지각하는 과정(Scan and Perceiving Process)의 성공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레지빌리티는 판독성, 리더빌리티는 가독성이라고 정의했다[4].

이러한 가독성의 정의를 시각 커뮤니케이션과 조형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시각적 자극에 의하여 문자를 보고 그 내용을 지각하기까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글을 인식하는 것과 읽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글자는 한 번에 응시함으로써 인식이 가능하지만 글은 한번 응시한다고 해서 글의 내용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글을 읽을 때에는 응시하고 있는 동안 시야의 제한된 범위내로 들어오는 글자들만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인쇄물 표면위에서 눈 운동을 통해 응시점을 옮겨 다니며 글자들을 표집하여 글의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가독성은 글자의 형태자체를 인식하는 것보다 각각의 글자 형태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

로서 형성되고 내용을 얼마나 편하게 읽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2.2 가독성에 대한 선행연구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 연구는 1980년 안상수에 의해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가독성은 내용적 측면이나 조형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 중 네모틀 활자꼴보다 탈네모틀 활자꼴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연구의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글자도구의 변혁에 따른 필연적인 시대요구.
2. 정보교환의 시간성, 일관성, 편리성 - 자모가 단순할수록 빠른 속도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기계간의 호환성이 높고 기계를 다루기가 편리.
3. 한글 글자체의 기준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자음, 모음이 어떤 글자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다양한 활자체 개발에 용이.
4. 한글창제 이념에 적합하다. - 한글은 애초부터 용근글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소로 분리되어 개발.

반면, 네모틀 서체가 선호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자의 영향 -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밖에 없었던 문제로 인해 일본이 만든 한문꼴 틀에 한글의 형태를 짚어 맞추려고 했기 때문.
2. 한글조합방식자체가 가로조합, 세로조합, 가로 세로 혼합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동일한 네모틀 안에 넣어서 해결해야 하는 것.
3. 현대에 와서 활자를 생산하는 도구가 필기도구에서 기계, 즉 타자기 및 컴퓨터로 바뀌기 이전까지는 네모틀을 벗어날 절실한 이유가 없음.
4.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양편 모두 무리 없이 사용하

려면 동일정방향 글자가 아니면 불가능.

5. 이미 익숙해진 사용자들의 습관.

위에 언급된 이유로 인해 탈네모틀 활자꼴을 주장하는 연구에서 나타나는 네모틀 활자꼴의 단점을 종합해보면,

1. 간단한 자음과 모음글자를 모아서 모든 소리를 적어내도록 만들어진 본래의 한글원리와는 달리 실제는 소리마디별 완성된 글자로 활자를 만들므로 한 벌의 한글 활자 수는 적어도 2300여자이상이다.
2. 글자는 모양과 크기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데, 특히 굵은 활자체 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3. 모든 글자의 균형은 정네모틀의 중심선이 기준이므로, 글자들이 가로로 배열될 때 글줄의 균형이 분명하지 못하다. - 특히 이제까지는 세로배열이 가지런하도록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와서 세로글줄 균형은 비교적 가지런하게 되었지만 가로글줄 균형은 이처럼 가지런하지 못하다.
4. 정네모틀 활자는 정네모틀 단위로 판짜기를 해야 하므로 판짜기나 지면배열은 쉬우나 글자간격이 고르지 않다.

김진평의 연구에서 네모틀 서체와 탈네모틀 서체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글 글자꼴의 기본성격은 모아쓰기 원리이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글자꼴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의 글자꼴이 형성된다.

낱글자 단위를 완성형 조형으로 설계하여 모든 글자를 네모틀 범위 안에서 고른 윤곽을 유지하도록 만든 완성형 네모틀 글자꼴이 그 하나이고, 자소단위인 당글자와 흘글자를 설계한 뒤 일정한 조합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해 만드는 조합형 탈네모틀 글자꼴이 또 하나이다. 또한 탈네모틀 글자표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술적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가능하며 한글창제 당시에는 비록 이 같은 표현을 하려고 했어도 실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날 조합형 탈네모틀 글자

꼴의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산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다.

2.3 가독성의 요인

가독성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글자 정보의 구성상 모든 요소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 글자체, 글자크기, 글줄길이, 글줄사이, 글자사이, 페이지 혹은 판형의 크기, 인쇄부위를 둘러싼 여백, 디자인의 일관성을 돕는 시각적, 기계적 요소, 끝손질(종이의 질, 잡지, 제본, 표지 등)- 따라서 가독성은 단지 글자의 자체적 구조나 형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외적요소들과의 조화 속에서 논의 되어야 하겠다. 이는 계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개념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거비취(Aron Gurwitsch)에 따르면[5], 계슈탈트 심리학자들의 근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지각을 탐구함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고찰에 앞서 직접적인 관찰에 우위를 두어야 한다. 이는 즉 이론에 따른 사물의 규칙에 앞서서 현상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2. 지각은 외부조건들을 변수로 하는 함수 $F1(Xe)$ 과 지각의 내부조건들을 변수로 하는 함수 $F2(X1)$ 의 결합 $P=F1(Xe)+F2(x1)$ 이 아니라 외부조건들과 지각의 내부조건들을 양변수로 하는 함수 $P=F(Xe, X1)$ 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지각에서 외부자극의 함수인 요소감각들을 따로 독립적으로 구분해 낼 수 없다.
3. 지각에서 일차적으로 직접 지각되는 것은 형태인데 이는 서로 지지하고 서로를 규정하는 항목들의 조화이다. 이때, 어느 한 항목을 고립시켜 그 자체로 취급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항목을 변형하는 것이며 다른 대상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본래의 대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전체형태를 이루는 항목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변형시키면 다른 항목들의 규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본래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된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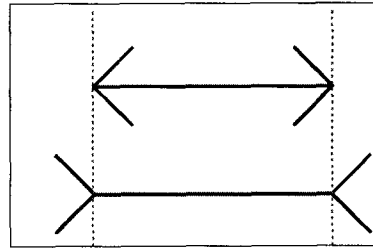


그림 4. 밀러라이어의 그림

이러한 계슈탈트 심리학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축을 갖는다. 주관적인 작용들에 의해 조직될 필요가 있는 그 어떠한 일차적인 생생한 자료들도 허용될 수 없다, 지각되는 대상 자체의 구조는 지각작용에서 그 자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대로이다. 왼쪽의 밀러 라이어(Müller Lyer)의 그림에서 보조선인 꺾쇠의 열린 방향이 바깥쪽인지 안쪽인지에 따라 선의 길이도 다르게 보인다고 할 때, 그 선의 길이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것이다. 이는 “같지 않으면 다르다.”는 사물의 규칙이지 우리가 지각하는 현상의 규칙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직접 다루는 대상은 현상이다. 이처럼 동등성, 비동등성과 마찬가지로 자기동일성, 유사성, 통일성 등과 같은 범주들은 현상에 속해있는 직접적인 인상들이다[5].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계슈탈트 심리학이 요소감각들을 일차적인 자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Gestalt)'의 성립을 이차적 생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지각에 상응하는 뇌 생리학적인 과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활자를 보고 지각하는 정보수용 과정에서 타이포그래피의 핵심기능인 가독성의 전제조건과 일맥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3. 한글의 구조

각각의 자소단위가 독립적인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글은 이들이 서로 형태결합을 이루어 하나의 글자로 완성되는 모아쓰기구조이기 때문에 수많은 글자꼴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통적 성격에 따라 이들을 보다 단순하게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

한글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기원에 따른 구조 2. 모임자리에 따른 구조 3. 윤곽에 따

른 구조로 나뉘며, 이외에 글자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줄기의 돌기여부와 직선줄기의 굵기 변화 및 곡선줄기의 성격 등이 그것이다[6].

1) 기원에 따른 구조

닿소리 글자는 첫 닿자(초성)와 받침 닿자(종성)가 있고, 닿소리는 소리가 나오는 구강 모양을 본떠 총 17글자로 만들어 졌으며 소리에 따라 닿소리 모양을 다섯 부류로 나누고 그중 가장 순한 다섯 가지를 정해 그 소리를 낼 때의 입속모양을 단순화 시켜 다섯 가지 기본 글자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표 1. 닿자의 종류 및 생성

분류	기본	가서 (加書)	병서 (並書)	이체 (異體)	받침 닿자
아(牙) : 허뿌리 닿자	ㄱ	ㅋ	ㆁ	ㅇ	ㅁ
설(舌) : 혀끝소리 닿자	ㄴ	ㄷ, ㅌ	ㄷ	ㄹ	ㄴ, ㄹ
순(脣) : 입술소리 닿자	ㅁ	ㅂ, ㅃ	ㅃ		ㄹ, ㅁ, ㅂ, ㅃ, ㅅ, ㅆ, ㅈ, ㅉ
치(齒) : 잇소리 닿자	ㅅ	ㅈ, ㅊ	ㅈ, ㅊ	ㅌ	ㅅ
후(喉) : 목구멍소리 닿자	ㅇ	ㅎ	ㅎ		

홀소리는 삼재(三才)를 연상하여 하늘의 둥근 모양(·, 천), 땅의 모양(-, 지), 사람이 서있는 모양(丨, 인)으로 최초 11글자로 만들어 졌고 또 이는 음양의 법칙에 따라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 중간소리로 나뉘며, 현재는 21글자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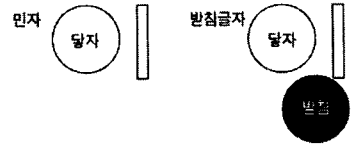
표 2. 홀자의 종류 및 생성

분류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	중간 소리
세로 홀자	丨 𠄎 𠄏 𠄐	𠄑 𠄒 𠄓 𠄔	丨
가로 홀자	一 二 三	ㄴ ㄷ	一
섞임 홀자	ㅅ ㅆ ㅈ ㅉ	ㅌ ㄹ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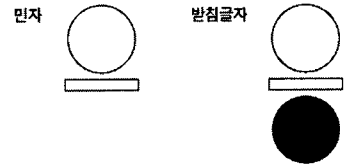
2) 모임자리에 따른 구조

한글은 모아쓰기 글자로 비록 글자구성이 복잡하고 글자마다 독립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으나 모임꼴에 따라 쪽자 각각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닿소리 글자와 홀소리 글자가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로모임, 세로모임, 섞임모임으로 나눌 수 있다.

가로모임글자



세로모임글자



섞임모임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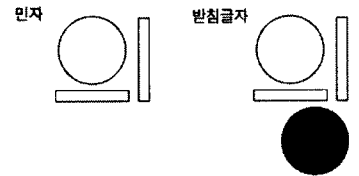


그림 5. 모임자리에 따른 구조

3) 윤곽에 따른 구조

낱글자는 비록 같은 모임꼴이라 해도 그 쪽자의 꼴에 따라 글자의 외곽모양이 달라지며 글자의 모양을 세분하면 그 수는 많아지나 유사한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크게 열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 한글꼴의 윤곽구조

서체/문법	모임자리에 따른 구조	특징
세로/받침 글자	다	밝은소리 받침글자 / 다, 나, 마, 바
세로/민자 글자	담	밝은소리 받침글자 / 담, 남, 함, 됨
가로/민자 글자	디	어두운 및 중간소리 민글자 / 디, 지, 비
가로/받침 글자	딤	어두운 및 중간소리 받침글자 / 딤, 엄, 됨, 받
세로/민자 글자	도	밝은 및 중간소리 민글자 / 도, 모, 요, 고
가로/민자 글자	두	어두운소리 민글자 / 두, 구, 우
세로/민자 글자	수	어두운소리 민글자 중 첫받침자 / 수, 슈, 유
가로/민자 글자	둥	받침글자 / 둥, 궁, 뚱, 읍, 읍
세로/민자 글자	소	밝은 및 중간소리 민글자 중 첫받침자 / 오, 스, 오, 소, 오, 소
가로/민자 글자	쪼	받침글자 / 쪼, 쪼, 쪼

4.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공간성

풀어쓰기 형태의 로마자와는 달리 한글은 모아쓰기 형태의 입체적 구성으로 되어있다. 창제초기의 한글은 굵기의 기하학적이고 네모진 줄기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며, 네모를 윤곽의 글자면적이 최대한 확장되어 보

여 줄기의 원리적 구성에 의한 공간적 구성이 불균형하다[7].

초기 세로쓰기 기반에서 창제된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우측이었지만 활자화 하는 과정에서의 중심은 두 곳으로 나뉘었다. 세로모임 글자의 무게는 정 가운데 있으며, 그 이외의 글자들은 우측에 중심이 있다. 따라서 세로쓰기의 경우 활자의 우측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지만 가로쓰기의 경우에는 그 중심의 흐름이 불규칙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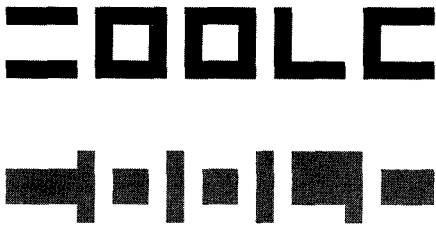


그림 6. 열린 공간, 닫힌 공간

하나의 공간에서 글자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나뉘는데, 내부공간은 각 음절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음소간의 조합에 따라 나타나는 공간으로 입체적 형태의 내부공간은 닿자와 홀자, 받침닿자의 공간배분 및 배열의 개념이 중요하다.

또한, 한글은 각각의 음소들이 조합되어 음절을 이루고 음절들이 단어, 글줄을 이루는데 음절과 음절이 조합될 때 만들어지는 외부공간은 각 음절의 형태가 열린 공간인지, 닫힌 공간인지에 따라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고, 각 음절사이의 공간구성에 따라 면적 또한 달라지게 보이므로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공간성은 문자의 가독성 및 조형성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III. 실험대상의 선정

1. 대상과 범위

본 연구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 네모틀과 탈네모틀 활자의 구조에 따른 가독성에 대한 연구로 분석에 앞서 대상과 범위의 한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네모틀과 탈네모틀 활자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활자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타이포그래피나 기타 관련 교과목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전공자나, 유사 전공자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에 따른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함으로 서체 선정에 있어서도 본문용 활자를 목적으로 개발된 서체 중 사용빈도가 높은 네모틀 활자인 '바탕체'와 탈네모틀 활자인 '공한체'를 선정하여 비교 실험하고, 실험을 통한 기능 분석에서도 가로모임글자, 세로모임글자, 섞임글자를 모두 보여줄 수 있는 '한글나아름답고빠어난그를사랑했노라' 문장으로 실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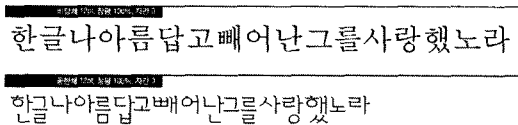


그림 7. 실험 문장의 예시

사용된 문장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장을 인용하였다[8].

2. 실험 및 내용

실험은 디자인 관련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 디자이너 남자 10명, 여자41명 총 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총인원 : 51명

2.1 네모틀활자와 탈네모틀 활자의 이해도

네모틀 활자와 탈네모틀 활자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서체를 아는 대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네모틀 서체로는 바탕체, 돌움체, 윤명조, 윤고딕 등으로 나타났으며, 탈네모틀 서체로는 안상수체, 아미체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네모틀활자와 탈네모틀 활자의 이해도

구분	5개이상	3-4개	2개미만	이해못함
네모틀활자	8	29	8	4
탈네모틀 활자	2	6	36	8

2.2 글자의 형태인지와 내용인지

레지빌리티_Legibility와 리더빌리티_Readability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서체로 작성된 같은 문장의 글을 제시하고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글자의 형태인지(레지빌리티_Legibility)가 보다 좋은 것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글자의 형태인지에 대한 결과

네모틀활자(바탕체)가 수월하다.	탈네모틀 활자(공한체)가 수월하다.	이해못함
36	15	

이에 네모틀(바탕체) 활자가 수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로는

표 6. 네모틀 활자가 수월한 이유

조합된 글자에서 형태와 공간분배가 적절히 조화되어서	9
각 글자 자소간의 형태가 분명해서	4
보기에 편해서	23

로 나타났고,

반면 탈네모틀(공한체) 활자가 수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로는

표 7. 탈네모틀 활자가 수월한 이유

조합된 글자에서 형태와 공간분배가 적절히 조화되어서	13
각 글자 자소간의 형태가 분명해서	2
보기에 편해서	

로 나타났다.

글의 내용인지(리더빌리티_Readability)가 보다 좋은 것에 대한 질문의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표 8. 글의 내용인지에 대한 결과

네모틀활자(바탕체)가 수월하다.	탈네모틀 활자(공한체)가 수월하다.	이해 못함
41	10	

네모틀(바탕체) 활자가 수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로는

표 9. 네모틀 활자가 수월한 이유

조합된 글자에서 형태와 공간분배가 적절히 조화되어서	9
각 글자 자소간의 형태가 명확해서	11
읽기에 편해서	21

로 나타났고, 반면 탈네모틀(공한체) 활자가 수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이유로는

표 10. 탈네모틀 활자가 수월한 이유

조합된 글자에서 형태와 공간분배가 적절히 조화되어서	4
각 글자 자소간의 형태가 명확해서	2
읽기에 편해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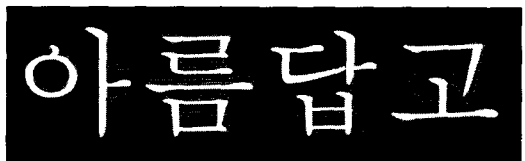
로 나타났다.

3. 실험결과의 요약

네모틀과 탈네모틀 활자의 이해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 많은 실험대상이 이해하고 있었고, 탈네모틀활자보다 네모틀활자의 이해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서체의 숙지 또한 네모틀활자가 보다 구체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사용빈도에서 탈네모틀 보다 네모틀 활자가 높고 또한 접하는 매체활용도 면에서도 탈네모틀 서체를 간혹 사용하는 신문이나 잡지보다 전형적인 네모틀 활자를 사용하는 디지털미디어나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매체의 접촉빈도수가 훨씬 높은 것에 따른 영향으로 나타난다.

가독성측면이나 판독성측면에서 네모틀 활자가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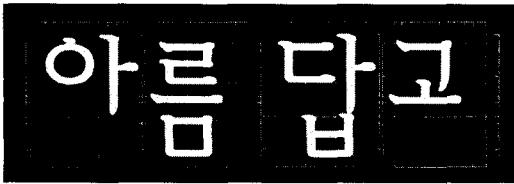


그림 8. 글자 틀에 따른 공간구조 바탕체, 공한체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물론 탈네모틀 활자보다 네모틀 활자가 사용빈도나 노출빈도에서 보다 높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 진 것이 이유이기도 하나, 네모틀과 탈네모틀활자의 조형에 따른 구조에 대한 이유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각의 정해진 위치에 따라 자소가 결합되는 탈네모틀 활자보다 결합된 음소에 따라 각각의 자소위치나 크기 등을 내적공간과 외적공간에 적절히 조율하는 방식의 네모틀 활자가 시각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것이 이유로 사료된다.

IV. 결론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민족의 미적사상과 조형성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적 측면에서는 자소단위에서 음절, 단어, 문장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시행과 검증은 거쳐야 한다. 네모틀 활자와 탈네모틀 활자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어느 한 쪽의 사용만을 고집하는 편협한 기호 또한 좋은 현상이 아니다.

한글 서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경제성과 편의성, 합리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한글을 바라보고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 활자를 개발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우리의 언어이며, 우리 문화를 이끄는 원동력이고, 우리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토대로 우수한 문화 환경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학적 측면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 디자이너는 한글 활자의 공간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어떠한 매체적, 내용적 환경에서 어떠한 목적에 의하여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면밀히 고려하여 활자를 다루어야만 수용자들이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수한 문화로 발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Köhler and Wolfgang, *Gestalt Psychology : An Introduction to New Concept in Modern Psychology*, New York, Liveright, 1970.
- [2] Hayes and Ricky, *Foundations of Psychology*, U.K, Nelson & Son, 1996.
- [3] Kendler, H. Howard, 이승복, 이현진, 김혜리, 김영란, *Historical Foundation of Modern Psychology*. USA: The Dorsey Press, 1987.
- [4] 강연아, *한글 활자체의 커뮤니케이션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5] Aron Gurwitsch, *Studies in Phenomenology and Psychology*, Northwestern Univ. Press, 1966.
- [6] 민혜란, *한글 바탕체와 돌음체의 비교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7] 최정호, *서체개발의 실제, 한글글자꼴 기본연구*, 한국출판연구소, 1988.
- [8] 고선, *글꼴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본 한글 디자인 경향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저자 소개

김영국(Young-Kook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미술학석사)
- 1997년 5월 :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미술학석사)
- 1998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관심분야> : 그래픽디자인, 편집·타이포그래피

박 성 현(Seong-Hyoen Park)

정회원



- 2003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과(미술학
석사)
- 200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영상학과(미술학박사)
- 현재 :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겸임교수

<관심분야> : 편집 · 타이포그래피, 디지털미디어